

불평등 경험 빈도의 두 가지 심리적 경로: 불평등 인식과 통제감의 역할*

김 영 주¹⁾ 나 진 경²⁾[†]

¹⁾동의대학교 심리학과 ²⁾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불평등 경험의 심리적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평등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과, 무력감을 느끼거나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모두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229명을 대상으로, 불평등 경험의 빈도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을 능동적 경로와 수동적 경로로 구분하여 두 가지 경로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불평등 경험의 빈도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불공정 사례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간접 효과는 물론, 불평등 경험의 빈도가 통제감의 감소를 매개로 불공정 사례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이어지는 간접 효과도 유의했다. 즉, 연구 가설과 같이 불평등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불공정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과 함께 통제감이 낮아 불공정한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모두 보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불평등을 자주 경험하는 경우는 불평등 인식 정도를 통한 능동적인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양극화 시대에 불평등 경험의 빈도와 심리 반응 사이의 입체적인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회 불평등 수준 인식, 통제감, 불공정에 대한 심리적 반응, 이중병렬 간접 효과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1S1A5A2A01062956).

† 교신저자: 나진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E-mail: jinkyung@sogang.ac.kr

 © 2025,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70%는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심화된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United Nation, 2020),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여러 국가에서 주요 사회 문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수준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각각 세번째,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0). 더욱 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한층 더 악화되었다(World Bank, 2020). 이에 따라 불평등에 노출되는 것의 심리적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영주, 나진경, 2018; 정동희, 심은정, 2022; García-Sánchez et al., 2025; Peters & Jetten, 2023; Sánchez-Rodríguez et al., 2022). 일부 연구는 불평등에 노출된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 반면에(Daly et al., 2001), 다른 연구들은 무력감을 느끼거나 이를 합리화하는 등의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Kim et al., 2022). 즉,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불평등의 심리적 효과는 적극적인 대응을 유발하는 경로와 소극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경로가 모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로와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로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불평등을 경험하는 빈도와 심리적 반응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통제감이 능동적인 경로와 수동적인 경로에서 각각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표는 개인적으로 불평등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면 사회 불평등 수준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로와 함께, 불평등을 자주 경험할수록 통제감이 낮아져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로도 존재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심리적 반응: 두 가지 경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한국 사회는 물론, 일반적인 현대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떠올랐으며(이철승, 2019; Piketty, 2014),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불평등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불평등 경험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탐구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김영주, 나진경, 2018; Peters & Jetten, 2023).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Greitemeyer & Sagioglou, 2017), 분노는 접근 동기와 관련이 있는 정서로 상황에 개입하는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Carver & Harmone-Jones, 2009), 불평등의 경험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불평등의 경험은 공격적인 행동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Daly et al., 2001)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사람들은 한번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위험한 의사 결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Payne et al., 2017), 장기적인 이익을 경시하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는 근시안적 의사결정을 선호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Shah et al., 2012). 비록 분노를 경험하며 그에 기반해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단기간 큰 수익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상의 연구들은 사람들이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불평등에 대해 다른 양상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노출되면 개입하여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며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Laurin et al., 2013). 또한, 불평등을 경험한 사람들이 분노와 같이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정서를 느끼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Jeong & Shim, 2022). 나아가, 불평등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등 수준을 낮게 지각하고 행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Kim et al., 2022), 불평등한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주의(Meritocracy)를 믿는 것이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McCoy et al., 2013). 즉, 이런 연구 결과들은 불평등을 자주 경험하면 사람들이 합리화를 통해 문제를 무시하거나 익숙해져 행동하지 않는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불평등의 심리적 효과를 탐색한 선행 연구들은 불평등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경로의 반응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불평등의 두 가지 경로를 매개하는 심리적 요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와 통제감의 역할을 검증하려고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van der Linden et al., 2015)와 개인의 통제감(Wang & Delgado, 2021)은 사회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reenaway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려면 해당 이슈가 문제라는 점과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모두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가 문제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통제감이 높은 경우에 사람들은 실제로 친환경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Eom et al., 2018). 따라서 사회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와 통제감이 불평등에 대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예: 지역 내 빈부격차와 관련된 자극)을 자주 목격하거나, 불평등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재분배 정책과 같이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인다(Sands, 2017; Sands & de Kadst, 2020). 따라서, 불평등을 자주 경험하면 불평등 수준을 높게 지각하게 되고, 높은 불평등 인식은 이런 상황에 개입하는 적극적 심리 반응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빈번한 불평등 경험은 통제감을 저하시키며(To et al., 2023), 낮은 통제감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반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Wang & Delgado, 2021), 불평등으로 인한 통제감 감소는 소극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 경험이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지는 간접 효과와 통제감의 감소를 통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지는 간접 효과가 모두 존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선행 연구들은 불평등을 얼마나 공정 혹은 불공정하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신뢰와 같은 심리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e.g., García-Sánchez et al., 2025; Sánchez-Rodríguez et al., 2022). 이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그 자체, 특히, 공정하게 인식되는 불평등한 분배는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참가자들이 주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불평등에 노출된 경험, 즉 불공정한 불평등 경험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같은 이유로, 불평등에 대한 심리적 반응 역시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미디어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심리적 반응의 양상과 강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Neria et al., 2008), 실제로 불평등을 경험하는 빈도와 미디어를 통해 불평등에 노출되는 정도를 함께 측정하여 불평등의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차이도 탐색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회사 앰브레인을 통해 한국의 성인 229명을 모집하였다(남자 117명 & 여자 112명; $M_{연령} = 39.56$, $SD_{연령} = 11.18$, $Range_{연령}: 20\sim59$ 세). 참가자의 수를 미리 정하지는 않았고 연구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Schoenmann 등(2017)의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자료를 토대로 사후 검정력 분석(Pow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인 두 가지 간접 효과에 대한 검정력은 각각 .92(불평등 인식을 통한 적극적 경로)와 .82(통제감을 통한 소극적 경로)로 우수한 수준이었다.

측정도구 및 절차

불평등 경험 빈도

참가자들의 불평등 경험 빈도는 직접 경험과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으로 나누어 각각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참가자들에게 기회의 평등(예: 지위, 교육, 직업 접근성에서 차별이 없는 것)과 결과의 평등(예: 소득, 사회적 지위 획득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이러한 측면에서 불평등을 실제로 경험한 정도를 질문하여 직접 경험 빈도를 측정하였다(1: 거의 없음, 4: 매우 자주). 다음으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이러한 측면의 불평등을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를 질문하여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 빈도를 측정하였다(1: 거의 없음, 4: 매우 자주). 즉,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불공정하다고 간주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불평등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를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사회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불평등 경험 빈도와 같이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측면에서 참가자들이 한국 사회를 평등 혹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저자들이 개발한 다음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얼마나 평등한 또는 불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결과의 평등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얼마나 평등한 또는 불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답하였다(1: 매우 평등하다, 5: 매우 불평등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의 지표로 활용하였다($\alpha = .791$). 이 지표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다고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통제감

참가자들의 통제감은 Lachman과 Weaver(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개인 수준의 통제감을 측정하는 Personal Mastery 하위 척도 3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예시 문항: “내가 뭔가를 정말로 하고 싶을 때, 나는 대부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를 사용하여 보고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매우 동의한다; $\alpha = .798$).

불공정에 대한 심리적 반응

참가자들이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한 일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참가들에게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불공정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직장 상사나 학교 지도 교수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위치에 처해 있다.

또한, 회사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 지원자의 직무 관련 능력과는 상관없이 입사 지원 서류에 기재된 학력만으로 서류 면접 단계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

안내문을 읽은 후, 참가자들의 심리적 반응을 정서, 인지, 및 행동 의도의 3가지 영역에 걸쳐 각각 한 문항으로 측정하여 본 연구의 종속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위의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정서적 반응), 한국 사회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인지적 반응),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행동 의도)를 각각 5점 척도에서 답하게 하였다(1: 전혀 아님/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많이/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세 문항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을 높은 점수가 소극적 반응을 나타내도록 코딩한 뒤 평균을 구하여 불공정에 대한 심리적 반응의 지표로 활용하였다($\alpha = .794$). 따라서 이 지표에서의 높은 점수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화를 내는 정도, 공정 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정도, 및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도가 다소 낮은 소극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통제 변인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정치적 성향, 객관적 사회 계층의 지표로 연 평균 가구 소득, 그리고 주관적 사회 계층의 지표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여 성별, 나이와 함께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정치적 성향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1: 매우 진보적, 7: 매우 보수적), 가구 소득은 8점 척도를 사용하였다(1: 1,500만 원 미만, 8: 1억 5,000만 원 이상).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MacArthur Scale of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Adler et al., 2000)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참가자들은 10개의 다리가 있는 사다리를 보고 사다리의 맨 위 다리에는 교육, 수입, 직업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

에서 가장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가장 맨 아래 다리에는 교육, 수입, 직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는 지시문을 읽는다. 그런 후에, 참가자 자신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한국 사회에서 어느 다리에 위치하는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결과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객관적 혹은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불평등을 직접 경험하는 빈도가 낮았다, $\text{all } rs \leq -.143$, $\text{all } ps < .05$. 미디어를 통한 간접 불평등 빈도의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과 부적 관계가 있었고, $r = -.140$, $p = .034$, 객관적 사회계층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r = -.120$, $p = .069$. 또한, 연구자들의 예상과 같이 실제로 불평등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통제감이 낮았고, $r = -.225$, $p < .001$,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r = .429$, $p < .001$. 반면, 미디어를 통해 불평등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들은 통제감이 낮지는 않았지만, $r = -.010$, $p = .885$,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r = .355$, $p < .001$.

주요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인 불평등 경험의 빈도가 개인의 통제감과 사회 불평등 인식을 통해 불공정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경험 빈도와 미디어 경험 빈도를 각각 독립 변인으로 하고 통제감과 불평등 인식 정도를 매개 변인으로 하는 이중병렬 간접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N = 229$)

	1	2	3	4	5	6	7	8
1. 불평등 경험 빈도(실제)	-							
2. 불평등 경험 빈도(미디어)	.355***	-						
3. 개인의 통제감	-.225***	-.010	-					
4. 사회 불평등 인식	.429***	.355***	-.208**	-				
5. 불공정에 대한 심리 반응	-.080	-.225***	-.182**	-.230***	-			
6. 정치적 성향	-.085	-.064	.059	-.154*	.120	-		
7. 가구 소득	-.143*	-.120	.182**	-.643	.052	.044	-	
8. 주관적 사회 계층	-.225***	-.140*	.282***	-.134*	.128	.179**	.476***	-
<i>M</i>		2.62	2.98	4.71	3.65	1.88	3.84	4.38
<i>SD</i>		0.70	0.70	0.95	0.74	0.63	1.17	1.43
<i>* P<.05, ** P<.01, *** P<.001.</i>								

실제 불평등 경험 빈도

실제 불평등 경험 빈도가 개인의 통제감 혹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인식을 거쳐 불공정에 대한 심리 반응으로 이어지는 두 가지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Process Model 4(Hayes, 2017)를 이용해 이중병렬 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Bootstrap Sample = 5,000). 분석에는 성별, 나이, 정치적 성향, 객관적 & 주관적 사회 계층과 더불어 미디어 불평등 경험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는데, 이를 변인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간접 효과를 비롯한 주요 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림 1(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불평등을 많이 경험하는 참가자들은 통제감이 낮았고, $B = -0.29$, $p = .003$, 95% CI = [-0.47, -0.10], 한국 사회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하였다, $B = 0.34$, $p < .001$, 95% CI = [0.21, 0.48]. 또한 통제감과 한국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각각 불공정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통제감: $B = -0.18$, $p < .001$, 95% CI = [-0.27, -0.09] & 불평등에 대한 인식: $B = -0.19$, $p = .002$, 95% CI = [-0.31 -0.07]. 불공정에 대

한 심리 반응은 점수가 높을수록 소극적인 대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통제감이 높거나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믿는 참가자들은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통제감을 통한 간접 효과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통한 간접 효과는 효과의 방향은 달랐지만 95%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통제감 경로: 0.05, 95% CI = [0.01, 0.10] & 불평등에 대한 인식 경로: -0.07, 95% CI = [-0.13, -0.02]. 정리하면, 실제 불평등 경험의 빈도가 통제감과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불공정에 대한 심리 반응으로 이어지는 서로 상반되는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실제로 불평등을 빈번하게 경험한다고 보고한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하여 불공정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심리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불평등을 자주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통제감을 감소시켜 불공정 상황에 대해 소극적인 심리적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디어 불평등 경험 빈도

다음으로 미디어 불평등 경험 빈도를 독립 변인으로 하여 동일한 이중병렬 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성별, 나이, 정치적 성향, 객관적 & 주관적 계층과 더불어 실제 불평등 경험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들 변인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간접효과를 비롯한 주요 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림 1(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디어를 통한 불평등 경험 빈도는 개인의 통제감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B = 0.14$, $p = .124$, 95% CI = [-0.4, 0.33]. 반면에, 미디어를 통해 불평등을 많이 경험한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B = 0.25$, $p < .001$, 95% CI = [0.11, 0.38]. 또한,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참가자들은 불공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B = -0.19$, $p = .002$, 95% CI = [-0.31, -0.08]. 더욱이, 통제감을 통한 간접 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지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통한 간접 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통제감 경로: -0.03 , 95% CI = [-0.07, 0.01] & 불

평등에 대한 인식 경로: -0.05 , 95% CI = [-0.10, -0.01]. 정리하면, 실제 불평등 경험 빈도와는 다르게 미디어를 통해 불평등을 경험하는 빈도는 통제감을 통해 불공정에 대한 소극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한국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불공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것은 개인의 통제감과는 관련이 없고, 따라서 불공정에 대한 소극적 반응과도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추가로, 미디어를 통한 불평등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불공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직접 효과는 경계선에서 유의하였다, $B = -0.12$, $p = .051$.

논의

본 연구의 목표는 불평등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심리적 반응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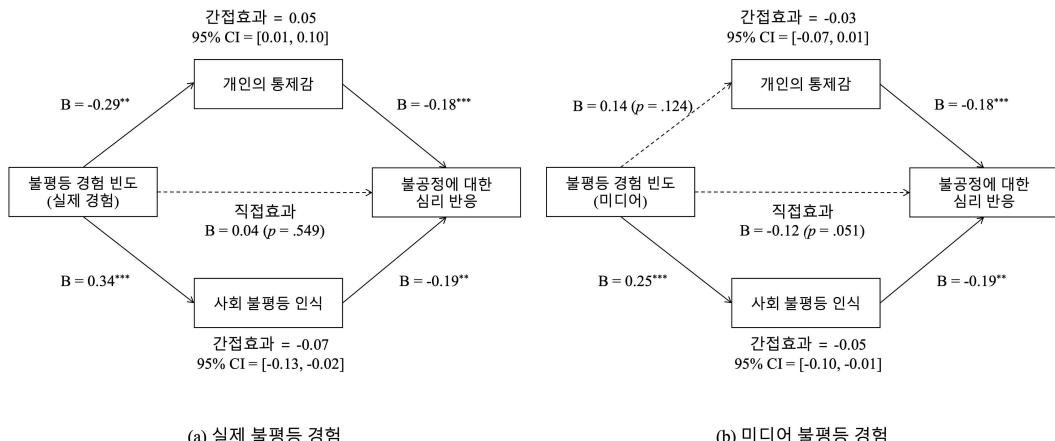


그림 1. 불평등 경험 빈도가 불공정에 대한 심리 반응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 (a) 실제 불평등 경험 & (b) 미디어 불평등 경험

통제변인을 포함한 모형의 통계치를 보고하였다.

** $p < .01$, *** $p < .001$.

직접 불평등 경험의 빈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통해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지는 간접 효과와 통제감의 감소를 통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직접 불평등을 경험할수록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어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불평등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낮은 통제감을 통해 불공정한 상황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도 함께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미디어를 통해 불평등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통제감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한국 사회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이어지는 간접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평등 경험의 빈도가 사람들의 심리에 다양한 방식으로 입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선행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리적 효과를 정서(Greitemeyer & Sagioglou, 2017), 인지(García-Sánchez et al., 2022), 및 행동(Payne et al., 2017)에 걸쳐 개인 수준(Kim et al., 2022)은 물론, 지역과 공동체 수준(Oishi & Kesebir, 2015)에서도 보여주었다. 이런 연구들은 불평등을 경험하면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반응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처럼 불평등 경험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람들의 심리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줄 가능성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충하는 효과를 모두 내포할 정도로 복합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한 불평등 경험과는 달리, 실제 불평등 경험의 빈도는 낮은 통제감을 통해 소극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 간접 효과가 유의하였

다.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소극적 반응이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Kim et al., 2022), 본 연구의 결과는 불평등을 직접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통제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입 방안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관 연구이므로, 변인 간 인과 관계를 확정할 수 없으며, 사전 검정력 분석을 통해 표본 수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불평등 경험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를 확인하였지만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는 검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모형이 암시하는 인과 관계를 확립하고, 불평등 상황에서 능동적 혹은 수동적 반응을 유발하는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사회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통제감을 매개 변인으로 하는 경로를 확인했지만, 불평등과 같은 복합적인 사회 현상은 다양한 심리적 경로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 경험과 심리적 반응 사이의 관계를 매개 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를 매개 변인들을 통한 다양한 방향의 간접 효과가 확인되면 이러한 간접 효과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불평등 경험 빈도의 직접 효과와 총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실제 경험과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 간의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불평등의 경험과 심리적 반응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상반되는 간접 효과를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심리 반응의 역동적인 관계를 조망했다는 의의가 있다.

저자 소개

김영주는 동의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계층이 개인의 생각과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진경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문화, 사회계층 및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희망연구소를 통해 희망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연구와 확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주, 나진경 (2018). 불평등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경험연구 개관: 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3), 313-347.

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서울: 문학과 지성사

정동희, 심은정 (2022). 대학생의 사회불평등 인식, 스트레스 및 삶의 질의 관계: 심리 네트워크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3(1), 5-26.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https://doi.org/10.1037/0278-6133.19.6.586>

Carver, C. S., & Harmon-Jones, E. (2009). Anger is an approach-related affect: Evidence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35(2), 183-204. <https://doi.org/10.1037/a0013965>

Daly, M., Wilson, M., & Vasdev, S. (2001). Income inequality and homicide rate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43(2), 219-236.

<https://doi.org/10.3138/cjcrim.43.2.219>

Eom, K., Kim, H. S. & Sherman, D. K. (2018). Social class, control, and action: Socioeconomic status differences in antecedents of support for pro-environmental a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7, 60-75.

<https://doi.org/10.1016/j.jesp.2018.03.009>

García-Sánchez, E., Correia, I., Pereira, C. R., Willis, G. B., Rodríguez-Bailón, R., & Vala, J. (2022). How fair is economic inequality? Belief in a just world and the legitimization of economic disparities in 27 european countr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8(3), 382-395.
<https://doi.org/10.1177/01461672211002366>

García-Sánchez, E., García-Castro, J. D., Willis, G. B., & Rodríguez-Bailón, R. (2025). Economic inequality and unfairness evaluations of income distribution negatively predict political and social trust: Evidence from Latin America over 23 year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6(4), 347-358.
<https://doi.org/10.1177/19485506231221310>

Greenaway, K. H., Cichocka, A., Veelen, R., Likki, T., & Branscombe, N. R. (2016). Feeling hopeful inspires support for social change. *Political Psychology*, 37(1), 89-107.
<https://doi.org/10.1111/pops.12225>

Greitemeyer, T., & Sagioglou, C. (2017). Increasing wealth inequality may increase interpersonal host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relative deprivation and aggress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7(6), 766-776.
<https://doi.org/10.1080/00224545.2017.1288078>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Jeong, D., & Shim, E. J. (2022). Association of perceived inequality, relative deprivation and

loneliness with the trajectory of anger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72(6), 1701-1706.
<https://doi.org/10.1080/07448481.2022.2089840>

Kim, Y., Jung, J., & Na, J. (2022). Socioeconomic status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responses to unfair treatments: Behavioral evidence of a vicious cycle. *PLoS ONE* 17(6): e026828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68286>

Lachman, M. E., & Weaver, S. (1998). The sense of control as a moderator of social class differences i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63-773.
<https://doi.org/10.1037/0022-3514.74.3.763>

Laurin, K., Gaucher, D., & Kay, A. (2013). Stability and the justification of social inequa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4), 246-254.
<https://doi.org/https://doi.org/10.1002/ejsp.1949>

McCoy, S. K., Wellman, J. D., Cosley, B., Saslow, L., & Epel, E. (2013). Is the belief in meritocracy palliative for members of low status groups? Evidence for a benefit for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via perceived contro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4), 307-318.
<https://doi.org/https://doi.org/10.1002/ejsp.1959>

Neria, Y., Nandi, A., & Galea, S. (2008).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ollowing disasters: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ical Medicine*, 38(4), 467-480.
<https://doi.org/10.1017/S0033291707001353>

OECD. (2020).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dde9480-en>

Oishi, S., & Kesebir, S. (2015). Income inequality explains why economic growth does not always translate to an increase in happiness. *Psychological Science*, 26(10), 1630-1638.
<https://doi.org/10.1177/0956797615596713>

Payne, B. K., Brown-Iannuzzi, J. L., & Hannay, J. W. (2017). Economic inequality increases risk tak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4(18), 4643-4648.
<https://doi.org/10.1073/pnas.1616453114>

Peters, K., & Jetten, J. (2023). How living in economically unequal societies shapes our minds and our social live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14(2), 515-531.
<https://doi.org/10.1111/bjop.12632>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Belknap Press.

Sánchez-Rodríguez, A., Rodríguez-Bailón, R., & Willis, G. B. (2022). Economic inequality affects perceived normative value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5(1), 211-226.
<https://doi.org/10.1177/1368430220968141>

Sands, M. L. (2017). Exposure to inequality affects support for redistribu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4(4), 663-668.
<https://doi.org/10.1073/pnas.1615010113>

Sands, M. L., & de Kadt, D. (2020). Local exposure to inequality raises support of people of low wealth for taxing the wealthy. *Nature*, 586(7828), 257-261.
<https://doi.org/10.1038/s41586-020-2763-1>

Schoemann, A. M., Boulton, A. J., & Short, S. D. (2017). Determining power and sample size for simple and complex mediation model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8(4), 379-386.
<https://doi.org/10.1177/1948550617715068>

Shah, A. K., Mullainathan, S., & Shafir, E. (2012). Some consequences of having too little. *Science*, 338(6107), 682-685.
<https://doi.org/10.1126/science.1222426>

To, C., Wiwad, D., & Kouchaki, M. (2023). Economic inequality reduces sense of control and increases the acceptability of self-interested unethical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52(10), 2747-2774.
<https://doi.org/10.1037/xge0001423>

United Nations. (2020). *Inequality—Bridging the divide*.
<https://www.un.org/en/un75/inequality-bridging-divide#:~:text=This%20shows%20inequality%20is%20neither,neither, and%20varies%20significantly%20across%20countries>

van der Linden, S., Maibach, E., & Leiserowitz, A. (2015). Improving public engagement with climate change: Five “best practice” insights from psychological sci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6), 758-763.
<https://doi.org/10.1177/1745691615598516>

Wang, K. S., & Delgado, M. R. (2021). The protective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during repeated exposure to aversive stimuli. *Frontiers in Neuroscience*, 15, 625816.
<https://doi.org/10.3389/fnins.2021.625816>

World Bank. (2020). *Poverty and shared prosperity 2020: Reversals of fortune*.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s://doi.org/10.1596/978-1-4648-1602-4>

1 차원고접수 : 2025. 03. 18.

수정원고접수 : 2025. 05. 16.

최종제재결정 : 2025. 05. 21.

Two Psychological Pathways of Inequality: the Roles of Perceived Inequality and Sense of Control

Youngju Kim¹⁾ Jinkyung Na²⁾

¹⁾Department of Psychology, Dong-Eui University

²⁾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With the increase of socioeconomic disparity, numer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inequality. Existing findings indicate that individuals experiencing inequality may respond proactively by actively addressing inequality, or passively by ignoring or justifying i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xperiencing inequality can lead to both proactive and passive psychological reactions.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se two psychological pathways in responses to frequent experiences of inequality. Our study ($N = 229$) identified the predicted two pathways of inequality. Specifically, the frequency with which one experiences inequality were indirectly associated with: (1) proactive responses to unfairness through greater perceptions of societal inequality, and (2) passive responses through a reduced sense of control. We also found that the indirect effect involving greater perceptions of inequality (but not, the indirect effect via a reduced sense of control) was significant for experiences of inequality through media exposure.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dynamic and multi-dimensional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psychological responses.

Key words : socioeconomic inequality, perception of inequality, sense of control, psychological responses to unfairness, parallel indirect effect